

도서관탐방

세계 도서관인들의 방문을 계기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줄

신성중고등학교 '동천도서관' 을 다녀와서



(6만 5천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 전용 독립건물. 1997년 4월 8일 개관. 건축 시부터 학교도서관으로 설계했다는 학교 운영자의 해인에 감탄했다. '동천'은 설립자 정창선 박사의 호)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Library Visits' 대상 도서관 선정 계기로 우리 협회와 인연 맺어

지난 5월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프로그램의 하나인 "Library Visits"에 참여할 30여 개 국내 도서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학교도서관 2곳(송곡여자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명단 발표 후 학교도서관계에서는 이번 명단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1곳을 추가로 추천하였다.

추가 추천 사유로는 그 도서관이 대회 장소인 코엑스에서 1시간 내의 거리에 위치하고(경기도 안양시) 국내 학교도서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서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국내 현실 상) 엄청난(?) 인력 배치 상황을 꼽았는데, 《도서관문화》팀이 이번 7월호에 방문한 신성중고등학교 '동천도서관' (관장 이정달, 이하 '도서관')은 역시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소개하여도 손색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적절한 시설·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학생 교내 생활의 일부로 차분히 자리잡아

사립학교인 신성중고등학교의 재단 신성학원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0년 경기도 안양 인덕원 부근에 학교를 개교한 이래 다년간 도내 진학 지도 우수교로 선정되는 등 안양의 명문으로 자리잡아 왔다.

〈실별 현황〉

	면적	열람석	위치
정보자료센터	592㎡	102석	2층
제1열람실	234㎡	168석	1층
제2열람실	234㎡	168석	1층
제3열람실	648㎡	424석	3층

〈자료 현황〉

단행본 자료	56,413점
정기간행물	48종
교사/교재	234점
매체 자료	5,703점
신성자료	155점
총계	62,397점

그 후 1996년 안양 6동 수리산 인근으로 교지를 옮기면서 학교 운영진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면적 794㎡(235평), 연면적 3,09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도서관(사진)을 1997년 4월 8일 개관하고 사서교사 3명을 채용하였다.

도서관 건물이 학교 초입에 당당히 위치한 덕분에 학생들은(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36학급, 교직원 및 학생 총 약 1,500명) 싫으나 좋으나 도서관을 지나 각자의 교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아무리 독서에 관심이 없는 학생일지라도 도서관의 존재에 무심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가 방문한 날도 도서관은 수업시간 중의 귀족은 듯 조용한 모습과 쉬는시간 중의 시끌벅적분주한 모습 2개의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교정 자체가 넓어 각자의 교실에서 왔다 가기만 해도 쉬는시간 10분이 빠듯할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도 도서관 출입구는 끊임없이 여닫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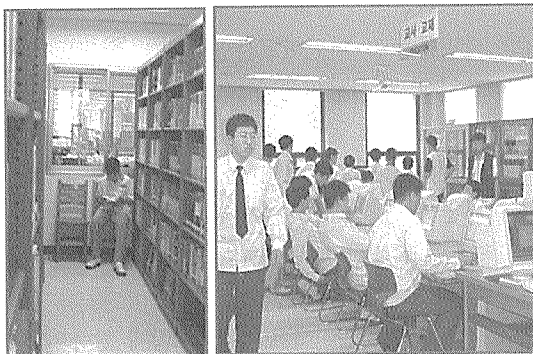
1일 평균 300여 책이 대출되는 도서관이 오늘날과 같이 학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기까지는 초창기 도서관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학교 운영진의 지원(현재 연간 도서구입비 약 2천 6백만원 책정),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전문 사서교사들의 체계적인 운영 방침, 그리고 전문 사서들 못지 않은 팀워크를 자랑하는 도서관 봉사 동아리(L.A.S) 학생들(고등학교 1-2학년 30여명)의 존재가 모두 큰 역할을 해왔다.

국제 행사 참여를 계기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역할 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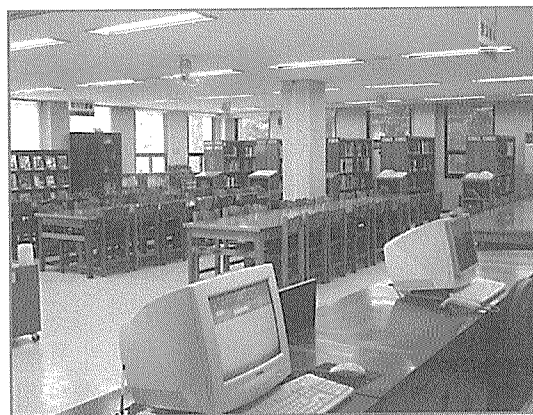
그 동안 도서관은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독서퀴즈대회와 다독학생 시상제, 특기적성 및 다양성 추구를 위한 영화 상영과 단편영화제, 도서 주제별 특별기획 코너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

획해 왔으며 작년에는 학부모들의 건전한 독서생활과 독서하는 가정풍토 조성을 위해 '학부모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활용한 교과협력 수업의 활성화라고 한다.

개관 이래 하드웨어 쪽으로 착실히 내실을 다져 왔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도서관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부디 '동천도서관'이 중요한 일원으로 참가하는 내년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 도서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를 계기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원해본다.  [글 : 박경아, 사진 : 신성중고등학교 동천도서관]



(서가 사이 한켠에서 조용히 책 읽는 학생의 평화로움과(사진 좌) 발빠른 정보검색의 분주함이 공존하는(사진 우) 학교도서관의 하루)



(대출대에서 바라본 2층 정보자료센터 전경)